

V. 독 일

□ FY 2007년 : 2007년 1월 ~ 2007년 12월

□ 출처 : Federal Ministry of Finance

- Bundeshaushalt 2007, Finanzplan des Bundes 2006 bis 2010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Federal Statistical Office Germany

(<http://destatis.d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

□ 환율 : 1 EUR = 1199.04원 (2006년 평균)

1 MARK = 613.06원 (2006년 평균)

<요 약>

- 2006년 독일경제는 실질 GDP 2.5%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성장 모멘텀의 약화로 1%대 초반으로 다시 떨어질 전망이다.
-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VAT 인상은 소비 위축, 물가상승 등 독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우려됨.
- 현재 Merkel 정부는 고용촉진을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과 더불어 기업투자 활성화 조치 강구
- 독일의 재정기반이 안정되면서 독일연방기본법 11조와 Maastricht-contract의 지침을 준수.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상황과 전망

1) 독일 경제의 대내외 여건 약화로 인한 성장세 둔화

□ 2007년 독일경제는 성장 모멘텀의 약화로 1%대 초반으로 하락 전망
(2006년에는 실질 GDP 2.5%의 성장률을 보임)

○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독일 수출 둔화에 있음

- 200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7%에서 3.3%로 하락할 전망
(미국 경기의 둔화)

- 유로화 환율의 강세 예상 (미·유로 지역의 성장률 및 금리차 축소,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문제의 재부각)

<표 V-1>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of Germany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Specification	Unit	2004	2005	2006
Gross value added ¹	EUR bn	1 994.21	2 022.47	2 077.6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EUR bn	24.27	19.91	20.08
Industry incl. energy	EUR bn	493.15	514.71	540.11
Construction	EUR bn	82.75	78.67	82.00
Trade and transport	EUR bn	357.84	365.62	379.60
Financial,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EUR bn	582.56	591.33	601.68
Other service activities	EUR bn	453.64	452.23	454.14
Gross domestic product ¹	EUR bn	2 207.20	2 241.00	2 302.70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EUR bn	1 718.00	1 740.70	1 773.38
-Private consumption	EUR bn	1 302.94	1 321.06	1 347.31
-Government	EUR bn	415.06	419.64	426.07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EUR bn	384.38	386.90	410.28
-Machinery and equipment	EUR bn	151.86	159.40	169.59
-Construction	EUR bn	207.85	202.31	214.75
-Other products	EUR bn	24.67	25.19	25.94
Changes in inventories, net-acquisitions of valuables	EUR bn	-6.06	-2.61	4.93
Final national uses	EUR bn	2 096.32	2 124.99	2 188.59
Balance of exports and imports	EUR bn	110.88	116.01	114.11
-Exports ²	EUR bn	844.12	912.27	1 034.31
-Imports ²	EUR bn	733.24	796.26	920.20
Gross national income ¹	EUR bn	2 209.42	2 248.16	2 312.89
National income (factor costs)	EUR bn	1 650.58	1 675.13	1 727.71
-Compensation of employees	EUR bn	1 136.79	1 129.26	1 144.12
-Property and entrepreneurial income	EUR bn	513.79	545.87	583.59
Gross domestic product (GDP)				
price-adjusted	2000 = 100	102.31	103.24	105.79
change of GDP price-adjusted	%	1.2	0.9	2.5

참고 : 1) Current prices
 2) Goods and services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Germany
 (Last updated on 11 January 2007)

- 2007년 독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기관별 편차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 내수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의 감소와,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를 예측

<표 V-2> 독일의 거시경제 전망

(%)

	GDP성장률		내수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		인플레이션율	
	'06년	'07년	'06년	'07년	'06년	'07년	'06년	'07년
IMF	2.0	1.3	1.5	1.3	0.7	0.3	2.0	2.6
WestLB	2.3	1.3	1.9	0.4	1.0	-0.3	1.7	2.5
Dresdner Bank	2.2	1.2	1.8	0.3	0.8	-0.2	1.9	2.7
Kiel 연구소	2.4	1.0	-	-	1.0	0.0	1.6	2.1
Ifo경제연구소	1.8	1.2	1.2	0.7	0.4	-0.1	1.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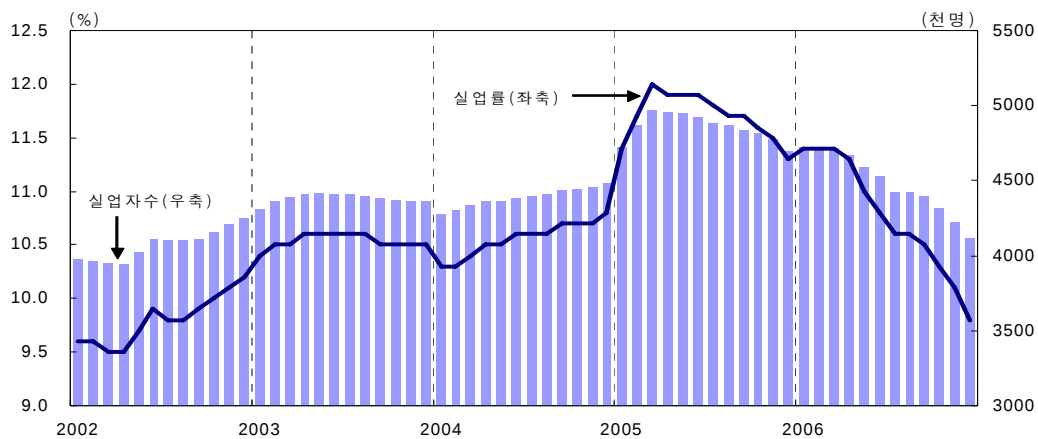
자료 : 기관별 전망자료 종합

□ 2006년 실업률 및 실업자수의 감소 :

12월 실업률이 9.8%로 2002년 5월 (9.7%) 이후 최저치를 기록,
실업자수는 412만명으로 1990년 통일 이후 최대폭 감소
(독일 통계청 발표 ; <그림 V-1> 참조)

- 2005년부터 실시된 Hartz IV와 2005년 11월 Merkel 총리 취임 이후 이루어진 노동개혁 조치⁵⁾의 성과 가시화에 주로 기인
- 독일 연방 노동청은 월드컵 개최로 5만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 되었으며, 이 중 2만개는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

[그림 V-1] 독일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 Germany

5) Merkel의 개혁조치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인턴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고용 유연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BOX 1> Hartz IV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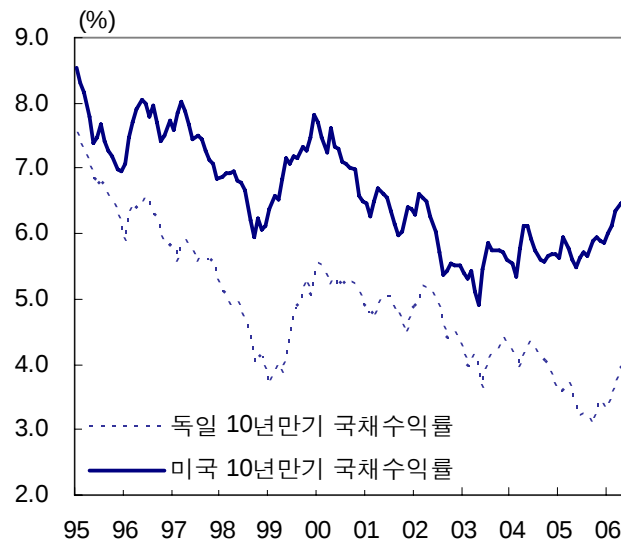
- ▶ 실업수당 지원기간 종료후 지급되는 실업보조금(Arbeitslosengeld)과 무소득·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부조금(Sozialhilfe)을 통합하고 명칭도 ‘실업급여Ⅱ(Arbeitslosengeld Ⅱ: ALG Ⅱ)’로 개칭
- ▶ 노동청이 주선하는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급여액이 더 줄어드는 등 고의적으로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 강화
- ▶ 즉,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유인, 실업수당 제도 개선, 저임금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제정

2) 성장세 둔화의 요인과 대책

□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킴

-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인상 등 긴축 금융정책이 강화됨
 - 2005년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에서 3.0%로 인상, 2006년 말까지 금리를 3.5%로 인상, 2007년에도 한 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 보임

[그림 V-2] 독일과 미국의 장기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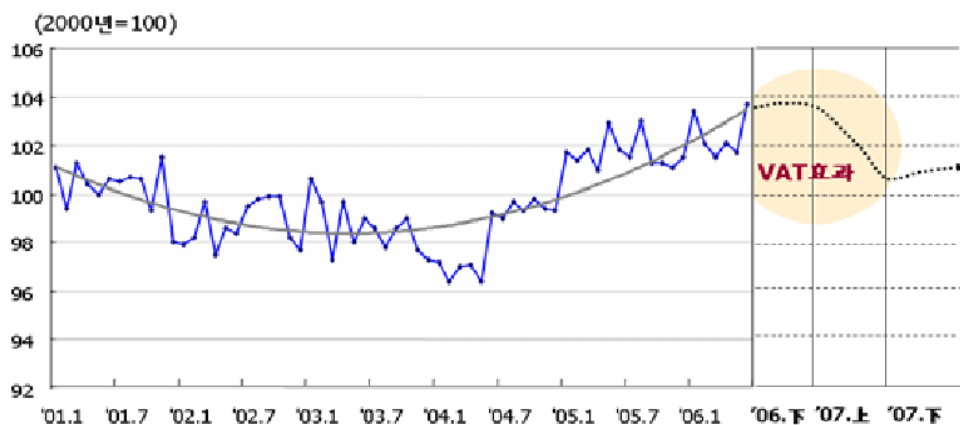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Alliance Dresdner Economic Research

□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침

- VAT(부가가치세) 세율 인상(16%→19%)과 개인 의료보험 및 연금 부담액 증가로 전반적인 근로세가 1.8%p 증가

[그림 V-3] 독일의 소매판매 추이 및 전망



자료 : Deutsche Bank Research 참조하여 재작성

<BOX 2> VAT의 인상

- 2007년 1월부터 표준 VAT 세율이 16%에서 19%로 3%p 인상⁶⁾
 - 인상목적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여 『성장 및 안정성 조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준수하기 위함
 - 3%p 인상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인상률 :
14% → 15% (1993년) → 16% (1998년) → 19% (2007년)
-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
 - 세수가 약 194억 유로만큼 추가 증가하여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05년 2.9%에서 2007년 2.5%로 감소될 전망
- VAT 인상은 소비 위축, 물가상승 등 독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그림 V-3> 참조)
 - 소비자물가는 2006년 2% 미만에서 2007년에는 2.5% 내외로 상승
 - Kiel 연구소는 VAT세율 인상으로 2007년 성장률의 0.4%p 감소와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의 0.3~0.4%p 상승 추정
 - VAT 인상에 따른 독일 소비패턴의 변화에 유의
 - 소비왜곡 현상 (VAT effect)이 발생 우려 :
독일 소매판매가 VAT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고가의 내구재를 연말까지 서둘러 구매하여 2006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호조세를 보임, 2007년에는 소비를 극도로 자제(가계소득의 약 1.5% <250억 달러> 감소 우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국경을 넘나드는 쇼핑(cross-border shopping) 증대 가능 :
저세율 국가인 스위스(VAT세율 7.5%)와 룩셈부르크(15%) 등의 소비 증가
 - 독일로 수출하는 기업은 구매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 재고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연방정부의 유인책 :

- 현 Merkel 정부는 고용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촉진에 주력
 - 노동개혁조치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인턴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고용 유연화 조치를 포함
 - 독일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39%→20% 후반)와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심리 고취

□ 중장기적으로 수출증가에 의한 성장 확대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이전과 글로벌 아웃소싱의 진전에 주로 기인
-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긴요함

나. 재정상황과 전망

1) 연방정부의 재정규모

□ 재정지출 : 연방정부의 2007년 예산에서 재정지출은 2,676억 유로임 (2006년 대비 2.3% 증가)

- 재정지출의 증가는 연방정부의 실업보험분담액의 감소와 연방 노동청 (federal agency for work)에 납부하는 VAT의 상승(대략 65억 유로)에 기인
- 2006~2010의 기간 중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략 GDP대비 0.7%에 이름

□ 신규투자 : 신규투자는 대략 235억 유로임.

6) 산업계 및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의회는 VAT 인상 법안을 통과 (2006년 6월 16일)

- 유로화가 안정되면서, 연방정부의 기반시설 투자는 높은 수준을 보임
 - 교육, 기술, 연구 및 Familienförderung(families production) 사업 등의 투자 증대

□ 재정수입 :

- 2007년 조세수입은 2,145억 유로임 (2006년 대비 205억 유로 증가)
2010년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은 대략 2,311억 유로 전망
 - 2007년 신규차입은 220억 유로임 (2006년 대비 162억 유로 감소)
 - 신규차입을 신규투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독일연방기본법 115조항(Die Regelgrenze des Artikels 115 GG)을 준수
- ※ 독일연방기본법 115조항에 따르면 차입규모는 투자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표 V-3> Government revenue and expenditure

Government revenue and expenditure as defined in ESA 95 ¹ EUR bn			
Specification	2004	2005	2006
Total revenue	957.13	975.88	1 008.04
Payments for the market and for the other			
non-market output (incl. the output for own final use)	41.19	44.15	43.84
Other subsidies on production	0.54	0.50	0.39
Property income	10.76	12.95	15.78
Taxes	481.23	493.02	523.76
Social contributions	396.67	397.02	400.97
Other current transfers	17.14	18.24	14.11
Capital transfers	9.60	10.00	9.19
- Total expenditure	1 039.60	1 048.48	1 054.53
Intermediate consumption	90.13	96.09	98.31
Compensation of employees	169.41	167.51	167.37
Other taxes on production	0.05	0.05	0.06
Property income	62.49	62.00	64.48
Subsidies	28.26	26.76	26.23
Social benefits in kind	163.72	167.47	171.44
Social benefits other than social transfers in kind	429.07	430.20	429.94
Other current transfers	33.30	35.33	35.45
Capital transfers	33.18	34.28	30.80
Gross capital formation	31.42	30.22	32.13
Acquisitions less disposals of non-financial			
non-produced assets	-1.43	-1.43	-1.68
= Net lending/Net borrowing	-82.47	-72.6	-46.49
Memorandum item:			
Net lending/net borrowing in % of gross domestic product	-3.7	-3.2	-2.0

¹ Excl. SWAP receipts as property income.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Germany (Last updated on 11 January 2007)

<표 V-4> The Financial plan of the federation 2006 to 2010

	2005	2006		2007 본예산	Financial Plan		
		본예산	결산 (잠정치)		2008	2009	2010
	billion €						
I. 재정지출	259.8	261.6	261.0	267.6	274.3	274.9	276.8
전년대비 증가율		+0.7	+0.5	+2.3	+2.5	+0.2	+0.7
II. 재정수입	259.8	261.6	261.0	267.6	274.3	274.9	276.8
조세 수입	190.1	194.0	203.9	214.5	218.2	226.0	231.1
세외 수입	38.5	29.4	29.2	31.1	34.6	27.9	25.2
신규차입	31.2	38.2	27.9	22.0	21.5	21.0	20.5
III. 신규투자 (without fund-loans to the old age pension insurance)	22.9	23.2	23.2	23.5	23.4	23.6	23.3

자료 : Federal Ministry of Finance, Bundeshaushalt 2007

2)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 **재정적자** : 2007년 독일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2.5%로 감소 예정이어서 Maastricht contract의 지침(reference)을 따름
- 독일의 재정적자는 2005년에는 GDP 대비 2.9%, 2006년에는 GDP 대비 2.5%로 감소 (경기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기인)
 - 독일은 2002년(GDP대비 3.2%), 2003년(GDP대비 3.9%), 2004년(GDP 대비 3.7%)에는 『성장 및 안정성 조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재정적자 상한선이 GDP대비 3.0%를 위반

2. 예산기조 및 세부 예산수입 · 지출내역

가. FY 2007년 핵심 예산기조 :

기업활동 지원 등은 R&D에, 노동측면의 지원 등은 사회보장 혜택에
중점

1) 기업활동 지원 등 : Research and Development

☐ 2007년 연방 정부는 “High-Tech-Strategie Deutschland” 혁신전략 도입:
Education 및 R&D 분야에 85.6억 유로 (총 재정세출의 3.2%) 투자

☐ 중소기업 지원: R&D 분야에 7억 유로 투자

☐ 매년 도시 재개발에 5억 유로 배정.

○ “Soziale Stadt” 프로그램은 “Stadtumbau Ost(east-city reconstruction)”와 “Stadtumbau West(west-city reconstruction)” 을 통
해 도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씀

2) 노동측면 지원 등 : 사회보험 및 보조금 지원

☐ 총 재정세출 중 대략 774억 유로(28%)를 사회보험 fund에 배분하여 기능
별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Insurance의 1/3을 연방 재정으로 지원함

☐ 2007년 1월 1일부터 연방 정부의 실업보험에 대한 기여분이 2%p 하락하
여 4.5%가 됨. 노년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노년층의 취업 보조금 2.32억
유로 배정

□ 2007년 1월 1일부터 Elterngeld(parent fund)가 도입:

- 매달 최소 300€ 부터 최대 1800€ 까지 지급
- 최대 subscription duration은 14개월임
(12개월 + 2개월 “Vatermonate: 소급적용”)

나. 세부 재정수입 · 지출 내역

1) 재정수입 내역

□ 2007년 조세수입: 대략 2,145억 유로 예정

(2006년 대비 205억 유로 증가)

-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은 대략 2008년 2,186억 유로, 2009년 2,260억 유로, 2010년에는 2,311억 유로 예정

※ 2006년 5월 “Steuerschätzungen” working group이 2007~2010까지의 조세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의 예측치를 전망

- 최근 경제성장률과 예상되는 조세개혁 (2007년 Organic fuels tax 인상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 산출

- 2008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인상이 예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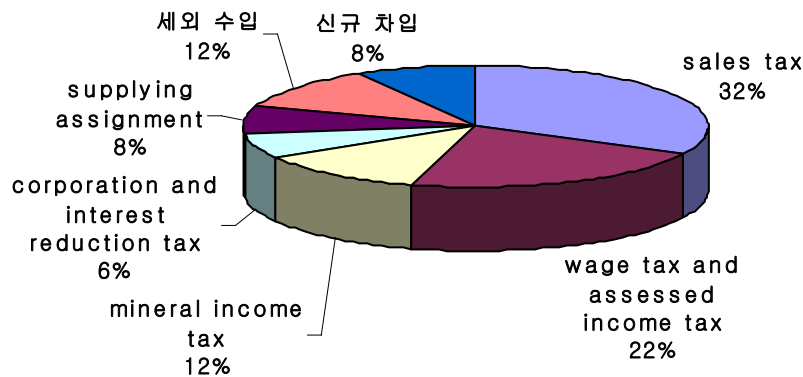
2008년 재정계획상의 조세수입의 40억 유로 감소 계획과, 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저해할 우려

□ 2007년 세외 수입: 311억 유로 예정

- 2007년부터 마샬플랜(유럽부흥계획 : European Recovery Program)의 수정과 정부기관의 민영화로 세외 수입 증가 예정

[그림 V -4] 2007년 분야별 연방재정세입

총 재정수입 : 2,676 억 유로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Finanzplan des Bundes 2006 bis 2010, p. 55

2) 재정지출 내역

□ 사회보장: 2007년 대략 1230억 유로가 배정되면서, 총 세출의 거의 절반 (45.7%)을 차지

○ 사회보장 중 연금 fund는 대략 774억 유로를 차지

○ 가족지원 fund에는 42억 유로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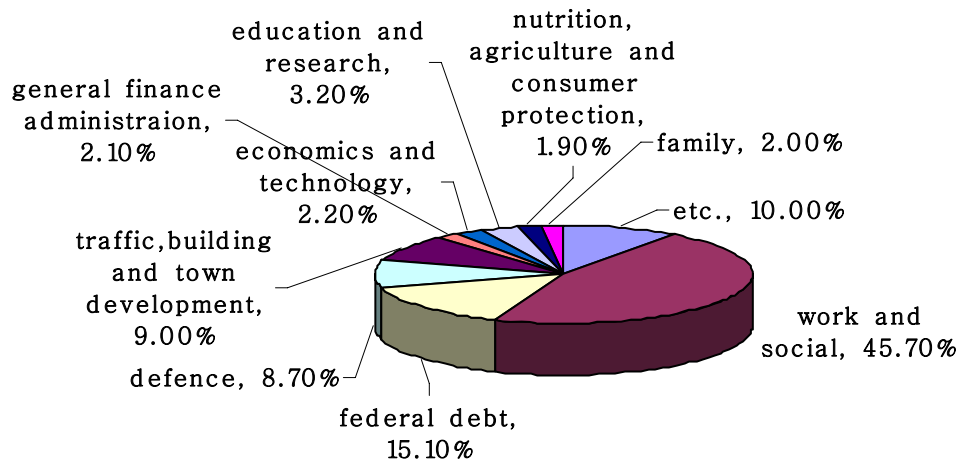
2007년에 도입되는 Elterngeld(parent fund)와 종래의 Erziehungsgeld (양육비) 포함

□ 2007년의 신규투자: 235억 유로로 2006년(232억 유로)대비 1.3% 상승.

○ 2007년 연방 철도, 국도 및 수로에의 투자금액은 17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그림 V -5] 2007년 분야별 연방재정세출

총 재정세출 : 2,676억 유로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Finanzplan des bundes 2006 bis 2010, p.11

<표 V-5> 독일연방정부의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재정지출 -1

	actual	extimate	projections			
	FY 2005	FY 2006	FY 2007	FY 2008	FY 2009	FY 2010
단위 : 백만 유로						
사회보장 및 전쟁관련 보상금						
사회보장	78 365	77 415	77 389	78 277	78 442	79 169
노동시장 보조	37 248	38 511	40 430	39 969	38 739	38 651
가족지원	3 447	3 461	4 178	5 147	4 695	4 697
주거보조	1 085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전쟁연금 등	3 773	35629	3225	2 975	2 783	2 597
농촌지원	3 743	3 780	3 712	3 759	3 807	3 868
사회보장 영역의 기타 보조 및 지원	5 079	6 278	3 573	2 039	2 014	1 960
국 방						
국방	23 864	23 880	24 360	24 580	25 880	25 180
기타	112	113	99	103	99	96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						
농업구조 개선 및 연안보호	663	615	615	615	615	615
토지 임야 및 소비자 보호	440	467	479	524	434	429
경제 보호						
에너지	1 977	2 003	2 426	2 374	2 313	2 133
탄산주류 (sparkling wine) 보호	476	529	554	512	492	476
중산층 및 산업기술 개발 보호	571	635	699	757	811	805
지역 경제 보호	1 226	869	692	660	609	608
채무보증	1 927	2 025	1 679	1 590	1 571	1 488
교 통						
연방철도	9 420	9 418	9 397	9 143	9 453	9 516
연방국도	6 151	5 783	5 488	5 406	5 412	5 386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Finanzplan des bundes 2006 bis 2010, p.13

<표 V-5> 독일연방정부의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재정지출(계속) -2

	actual		extimate		projections	
	FY 2005	FY 2006	FY 2007	FY 2008	FY 2009	FY 2010
단위 : 백만 유로						
연방수로	1555	1607	1666	1731	1780	1768
지방정부 교통 개선	1627	1667	1672	1672	1672	1672
기타	1327	1463	1664	1631	1638	1498
건설 부문						
건설 및 도시계획	1788	1591	1984	1873	1856	1816
교육, 기술, 연구 및 문화사업						
산학협력활성	6609	7009	7293	7481	7770	7810
대학	1058	1171	1422	1632	1630	1705
교육 및 과학	1427	1488	1505	1532	1552	1565
직업훈련보조	1077	1286	1324	724	708	421
문화사업	1424	1437	1476	1480	1482	1437
환경보호	503	503	504	496	484	453
체 육	128	125	108	109	109	107
치안 및 이민	3337	3485	3554	3565	3547	3541
경제 협력 및 개발	3840	3974	4328	4558	4713	4838
일반금융 관리						
이자지출	37412	37614	39308	41572	42558	44844
경제부양	8666	8476	9714	14757	14811	14881
신탁기관 설립 및 운영	358	349	302	268	263	230
기타	7656	8151	8250	8365	8518	8400
Global multi/reduced expenditures	-	-664	-87	311	496	-131
총 재정지출	259,800	261,000	267,600	274,300	274,900	276,800

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 Finanzplan des bundes 2006 bis 2010, p.14